

칠십 세의 경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 안 제

70세는 오래 산 나이이다. 해로 70년이고 달로 840개월이고 날로 25,568일이며 시로 613,632시간이니 무척 긴 기간이다. 역겹의 세월로 보면 찰나요 순간이며 수유(須臾)에 지나지 않지만 하루살이가 보면 상상도 못할 장구한 세월이요 한 사람의 생애로 봐도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70살까지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하여 고래희(古來稀)라 하였고 일흔 살을 고희(古稀)의 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공자(孔子)는 70세에 이른 사람이 갖게 되는 경지를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는 말로 표현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해도 결코 일정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인인 공자는 일흔 살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는 몰라도 일반 범인들로서는 언감생심 엄두도 낼 수 없는 높은 경지이다. 70에 이른 노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아마 열에 아홉이 아니라 열에 열은 ‘주책이다, 노망이다, 노욕이다, 치매다, 꼴불견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자기 나이가 70세라고 해서 공자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큰 실수가 따르고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 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80세에 가까웠고 2040년이 되면 9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언젠가는 125세라는 천수(天壽)의 나이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0세 나이를 도달하기 어려운 고희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적절치 못하며, 80세나 90세로 옮겨서 써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70세를 칭하는 고희의 의미를 순수한 연륜이 아니라 공자께서 일컬는 마음 내키는 대로 처신해도 좋다는 경지로 해석함이 옳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일흔 살의 나이에 이르러도 마음 내키는 쪽으로 행동하여도 규범적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로부터 드물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는 일흔 살을 넘고 보니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기가 더 어렵고 행동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나이를 헛먹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무척 신경이 쓰인다.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심도 아직 남아 있으며, 걸핏하면 마음이 비틀어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섭섭함을 느낀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데, 순수하고 천진난만해지는 것은 좋지만 철없고 유치한 언동을 서슴지 않는 늙은이 아이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훌훌 털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한가히 지내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칩거하기에는 인간사와 맺어진 인연이 너무 깊고 질기다. 하늘이 준 수명이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을 늘려 무리한 계획을 세워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기도 어렵다. 과거를 회상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삶을 정리하여 어디로 떠날 수도 없으며 앞을 향해 무

작정 뛰어갈 수도 없는 영거주춤한 70대의 연륜에 머물고 있다.

70대에 걸맞은 인간의 참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모형의 인간상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오래 오래 살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신불에게 기원 드린다.